

28장(통28) / 복의 근원 강림할 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384장(통434) / 나의 갈길 다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설 명 절

가 정 예 배



 **한국기독교장로회 김포한신교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87-51

031-985-4941

가정예배 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찬 송28장(통28)/복의 근원 강림할 때..... 다 같 이
- ◆ 기 도 가족중에서
- ◆ 말씀봉독 시편 119:49~56 말 은 이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 ◆ 찬 송 384장(통434)/나의 갈길 다가도록 다 같 이
- ◆ 자녀를 위한 덕담 부 모 님
- ◆ 주기도문 다 같 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

우리는 살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음도, 건강도, 내가 소유하는 것들까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절 말씀에서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

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소망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녀들을 의지하는 만큼 실망도 크게 찾아 오기도 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도 사라지게 되면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51절). 우리는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처럼, 사람들의 조롱에 낙담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이겨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날마다 부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나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도 고백하기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욥 6:10)라고 말하며 위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6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 결국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을 소유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먼저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도록 2024년 한 해 동안 더욱 더 말씀과 가까이 붙어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